

**Title: the greatest gift Sermon Notes**  
**Christmas Message 2021**

Scripture: Luke 2:1-7

Date preached: December 26<sup>th</sup> 2021

**Scripture: Luke 2:1-7**

**1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2 This census firs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ing Syria. 3 So all went to be registered, everyone to his own city.**

**4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out of the city of Nazareth, in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ife, who was with child. 6 So it was,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completed for her to be delivered. 7 And she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 2 이 인 구 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3 그래서 사람 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4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 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5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중이었는데. 6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 날이 왔다. 7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 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Introduction**

Our Christmas worship for this year falls on December the 26<sup>th</sup>. In the UK and in many other countries that were once part of the British empire we have a special name for this day. We call it “Boxing Day.” Today, in the UK it is a day of major sporting events and the start of Christmas sales in the shops. But the day does not derive its name from the sport of boxing. The origins of Boxing day have a much more special and significant meaning. A meaning far more in-keeping with what our focus ought to be at this time of the year.

In the past churches would have special wooden boxes placed next to the church doors. They were known as alms boxes. To give alms simply meant to be charitable and give to those in need. In ancient times there were no organised charities so the church quite rightly took on the role of helping the poor. These boxes had small slots or sometimes doors into which people would post coins inside. The idea was that if you had some extra money, or if you had a desire to help the poor and needy you could put it in the box. The tradition goes that the boxes were unlocked and the money divided among the poor on, you guessed it the day after Christmas.

Hence the day, over time became known as “the opening of the alms boxes day.” Eventually this became shortened to simply “Boxing Day.” What a wonderful occasion it must have been. As the boxes were opened and the money shared out amongst the most needy in society.

We all enjoy receiving gifts. Even though most of us living in first world countries have all we need we still like to be given presents. Many of us also enjoy searching for, and buying the perfect gifts for those we love. It's a really satisfying feeling when you see someone express great delight at a gift you have given them. It equally crushing when you see your gift is something unwanted or disliked. Sadly today Christmas has become commercialised and materialistic. It is primarily for

many people only about buying and giving presents. There is nothing wrong with giving the people you love gifts at Christmas. However there is something wrong when your sole focus because that, and not what lies behind it.

So today I want to strip away all the other things that have been added to Christmas and take you back two thousand years to the town of Bethlehem. It was to this small and insignificant Judean hill town that God delivered the perfect gift for human kind. God knew exactly what it was we needed. It was a gift that He had been saving for just the right occasion. That gift was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day we will read about the arrival on earth of Jesus.

I am sure that you are aware that only two of the four gospels describe the birth of Jesus. Only Matthew and Luke record it. Mark begins his gospel with John the baptist preparing the way for the adult Jesus to begin His ministry. John starts his gospel by telling us that Jesus was God from all eternity before telling us about the herald John the baptist. Some of you might wonder why the birth of Jesus is not included in all four gospels? It was after all a moment in history unlike anything else ever witnessed before or since. God taking on human flesh and being born as a baby on earth. It's an absolutely earth-shattering event. Why then do Mark and John not include it?

We should remember that each Gospel writer addresses his work to a particular audience. Also each gospel writer has a particular emphasis in mind. So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imilarities between them each author chooses a slightly different aspect or perspective of the life of Christ to portray. This is why we should not classify the gospels as a biography of Jesus. They were never intended to reveal every aspect of their subjects life. This means that it is perfectly acceptable for Mark and John to omit the birth of Christ from their accounts. It is not because they do not know about the virgin birth, or accept it as fact but simply that it is not the story they are telling.

All four gospel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elling us about Jesus as the Messiah. The one God sent to save. Therefore what Jesus was doing in childhood and prior to the start of His public ministry is largely irrelevant. We might be curious to know about Jesus' early years, but in the big scheme of salvation they are not important. Our focus today is on the arrival on earth of our Lord and savior. It's a familiar story to most believers, and one we have read or heard preached many times. But that does not make it any less amazing. Let us then with joyful hearts read again about the arrival on earth of our Lord.

올해 성탄예배는 12월 26일입니다. 영국과 한때 대영제국의 일부였던 다른 많은 국가에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싱 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주요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날이며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날은 복싱이라는 스포츠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닙니다. 박싱데이의 기원은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의 이맘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과 훨씬 더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교회에는 교회 문 옆에 특별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선 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자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는 조직된 자선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작은 슬롯이 있거나 사람들이 그 안에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상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상자의 잠금을 해제하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선 상자를 여는 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박싱 데이"로 단

축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기회였을 것입니다. 상자가 열리고 돈이 사회에서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 선물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제 1 세계 국가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물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찾고 구매하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이 준 선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당신의 선물이 원치 않거나 싫어하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상품화되고 물질화되었습니다. 주로 선물을 사고 주는 것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 때문에 집중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에 추가된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2 천 년 전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완전한 선물을 주신 곳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적절한 경우를 위해 아껴두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4 복음서 중 2 복음서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그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네 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탄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전이나 이후에 목격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구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마가와 요한은 왜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 복음서 필자가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각 복음서 저자는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각 저자는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삶의 약간 다른 측면이나 관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체 생활의 모든 측면을 공개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마가와 요한이 그들의 기록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략하는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 모르거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모두는 주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구원의 큰 계획에서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읽거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다시 읽어 봅시다.

**1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Here's an easy trivia question for movie fans. Which famous science fiction movie released in 1977 began with the words,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It was of course Star Wars written and directed by George Lucas. It's the perfect introduction to a

story of pure fantasy in which nothing is grounded in reality. All of the things you see in that movie are from the imagination of its creator George Lucas.

Luke by contrast is not writing a story of myth of fantasy. He is recording events that are rooted in history. He is telling us about real people who existed in real time. The things that follow took place when Caesar Augustus was the Roman emperor. He reigned as emperor from 31 BC to 14 AD. Augustus was the first, and according to many scholars the greatest of the Roman emperors. He is noted particularly for replacing the republic with an imperial form of government, expanding the empire and establishing the Pax Romana (Roman peace). This period of peace ushered in a golden age for Roman literature and architecture.

Luke tells us that Augustus called for an empire wide census. Typically censuses were held every 14 years and were an important part of Roman governance and control. They were not for simple record-keeping or for recording statistics. They were designed so that the state coul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ax everyone in the Roman Empire. You see even in the ancient world there was no escaping taxes!

영화 팬들을 위한 간단한 퀴즈 질문입니다. 1977 년에 개봉된 유명한 SF 영화 중 "아주 먼 옛날 은하계에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유명한 SF 영화는? 물론 조지 루카스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스타워즈입니다. 아무것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순수한 환상의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소개입니다. 당신이 그 영화에서 보는 모든 것은 제작자 조지 루카스의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누가는 환상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에 뿌리를 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존재했던 실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원전 31 년부터 서기 14 년까지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황제였으며 많은 학자에 따르면 로마 황제 중 가장 위대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화국을 제국 형태의 정부로 대체하고, 제국을 확장하고, Pax Romana(로마 평화)를 수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평화의 시기는 로마 문학과 건축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전체에 대한 인구 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조사는 14 년마다 열렸고 로마 통치와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남기거나 통계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조차 탈세 세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This census firs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ing Syria.**

Luke tells here here that this particular census took place whilst Quirinius or to give him his full name Publius Sulpicius Quirinius was governing Syria. Quirinius it seems served two terms of office. The first in 6-4 BC and the second in 6-9 AD. There has been much debate and discussion over this verse because of the dates of the census. We know from historic sources that there was a census in 6 AD. This is too late for the birth of Jesus which probably occurred in 5 or 4 BC. If we go back 14 years the normal interval between censuses we come to 8 BC. We have records from Egypt that confirm that there was a census in this year. However this is too early for the birth of Jesus and doesn't fit with the dates of Quirinius. How can we reconcile this possible problem? The solution is really quite simple. Augustus passed the decree in 8 BC but it was not carried out in Judea until 4 years later. The delay may have been due to political difficulties between Herod and Rome. So the census began in 5 or 4 BC when we know Jesus was born and Quirinius was governing Syria.

누가는 여기에서 이 특정한 인구 조사가 퀴리니우스 또는 그의 이름을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가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퀴리니우스는

두 가지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기원전 6-4 년에, 두 번째는 서기 6-9 년에 있습니다. 인구 조사 날짜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기 6 년에 인구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출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원전 5-4 년에 일어난 예수의 탄생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인구 조사 사이의 정상적인 간격을 14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8 년이 됩니다. 올해에 인구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집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 이르고 퀴리니우스의 날짜와 맞지 않습니다. 이 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솔루션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8 년에 법령을 통과시켰지만 유대에서는 4 년 후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헤롯과 로마 사이의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조사는 예수가 태어나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기원전 5-4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3 So all went to be registered, everyone to his own city.

Again here in verse 3 we run into difficulties. Normally the Roman's registered people in the place they resided. That is the simplest and most convenient way to record people. Making people travel long distances is difficult and unpopular. We also have no historical record of Augustus calling for a census to be taken like this. Interestingly though a papyrus was discovered in Egypt containing the text of a proclamation from 104 AD regarding a local census. In it, Gaius Vibius Maximus, prefect of Egypt, commanded the men of the province to return to their "place of origin" to be registered. So we do have a historical precedent that such a census did take place.

We also know that Caesar Augustus was a ruler who was sensitive to the nationalistic feelings of his people. To this end he often let local rulers follow their own traditions or practices. So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he allowed the Jews, or even Herod to insist that people went to their home-towns for the census. It also makes good sense in Israel where very detailed records were kept of who owned what land or property.

This was because every seven years under Old Testament law the land went back to the original owner. Therefore detailed record keeping was essential. Although travelling in the ancient world was not easy it would have been a great blessing for families to all get together in their home-towns. We see a similar thing i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today when people return home for major holidays.

다시 여기 3 절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등록된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록하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고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우구스투스가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요구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에서 지역 인구 조사에 관한 서기 104 년의 선언문이 포함된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에서 이집트의 총독인 가이우스 비비우스 막시무스는 속주 사람들에게 등록을 위해 "출발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백성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민감한 통치자였음을 압니다. 이를 위해 그는 종종 지역 통치자가 자신의 전통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대인들, 심지어 헤롯에게까지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가라고 주장하도록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누가 어떤 토지나 재산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이 보관된 이스라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7 년마다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기록 보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고향에 모였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사람들이 명절에 집으로 돌아갈 때 비슷한 현상을 봅니다.

**4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out of the city of Nazareth, in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5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ife, who was with child.**

Joseph and Mary were living in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when the call to register came out. However Joseph's home town or ancestral home-town was Bethlehem in Judea. Therefore he had to return there to register. Bethlehem in those days was small and insignificant. A dusty Judean hill town. However it had an impressive history, it had been the birth place of Israel's greatest king; David. Joseph and Mary were both descendants of David. It is also even more significantly the town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for where the Messiah would be born.

**“But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little among the thousands of Judah, Yet out of you shall come forth to Me The One to be Ruler in Israel, Whose goings forth are from of old, From everlasting.” (Micah 5:2)**

We may wonder why Joseph took Mary with him. After all it was not an easy journey to take especially when pregnant. It was a journey of about 85 miles and would have taken about three days to make. We should note that under Roman law in Syria and Palestine females over the age of 12 were required to pay a poll tax and therefore they had to register. We should also note here that Mary was Joseph's betrothed. This means that whilst they were not formally married (living together as husband and wife) they were promised to be married. Today we might say they were engaged. In Jewish culture this was a much more binding arrangement than engagement is today. A betrothed couple were considered married by society but they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Also we should note here that the traditional view was that Mary was just about to deliver when they travelled to Bethlehem. We do not know this for sure. Joseph may have taken her to Bethlehem some time before the Lord was due.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등록하라는 부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향 또는 조상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등록을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먼지 투성이의 유대 언덕 마을. 그것은 인상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또한 구약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 예언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천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부터 있느니라.” (미가 5:2)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간 이 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신한 상태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 85 마일의 여행이었고 만드는데 약 3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리아의 로마법에 따라 12 세 이상의 팔레스타인 여성은 인두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자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남편과 아내로 동거하면서) 결혼하기로 약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약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었습니다. 약혼한 부부는 사회에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때 마리아가 막 해산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보다 얼마 전에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6 So it was,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completed for her to be delivered.**

Whilst they are in Bethlehem it comes time for Mary to deliver the Lord. I wonder how many times we have read this simple verse without thinking of the momentous truth behind it. Mary, a humble

human woman is about to give birth to the God of the universe. Without great fanfare, God who created and sustains all that exists is about to come into this world. I like the way Ken Hughes describes what is about to happen;

*"The baby Mary carried was not a Caesar; a man who would become god, but a far greater wonder; the true God who would become a man."*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주님을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간단한 구절 뒤에 숨겨진 중대한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겸손한 인간 여성인 마리아는 곧 우주의 신을 낳을 것입니다. 큰 광과르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Ken Hughes 가 곧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신이 될 사람인 카이사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적, 사람이 되실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7 And she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And so Luke tells us in very simple language that the Lord Jesus Christ was born. He was Mary's first born son. The bible tells us that others were to follow. Unlike Jesus they would have a human father; Joseph. Were Mary and Joseph alone when the Lord was born. We do not know for sure but possibly they were.

We do know that Mary herself took torn cloth and wrapped them around the infant Jesus. This was common practice in the ancient world and is still practised today. I remember my daughter being wrapped up like a mummy! A baby is wrapped to help it better adjust to life outside the womb. It helps infants sleep better, stops them scratching themselves and can therefore prevent infections. After he was wrapped Mary laid the Lord Jesus in a manger. The word manger here is the Greek word *phatnē* (fat'-nay). It means a cattle-crib, a trough or a feeding box for animals. It may have been made from wood or perhaps stone. Whatever it was made of it would have been crude and basic. Luke is the only writer in the New Testament to use this word. Just think on this fact for a moment. Where are most royal babies laid down to rest?

Royal babies can expect luxurious treatment. They may well be the precious heir to the throne and are treated as incredibly precious. We imagine their beds to have soft clean mattresses, with golden ornamentation around the edges and to be spotlessly clean. But not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He spent His first night sleeping in a place which usually held animal food. But this just reflects His mission and purpose. He came not to reign and rule but to serve and sacrifice.

It is this fact that Jesus was laid in a manger that has led many to believe that Jesus was born in a stable or even a cave. This is possibly the case, we are after all told that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We should of course not think of the inn as being the local hotel or guest-house. An inn in the ancient world was often just a rudimentary building or shelter. Such inns often had two floors, on the ground floor you could cook and house your animals. On the second floor you would sleep. This was the same for most people's homes in rural areas. It must have been cosy but rather smelly. I think that this was the kind of place in which Jesus was born. He was born and slept His first night in the place usually reserved for the animals. Again how amazing it is to think of God being born in such a humble setting.

그래서 누가는 아주 간단한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맏아들이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달리 그들은 인간 아버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조셉,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단둘이였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자신이

찢어진 천을 가져다가 아기 예수를 감싸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 관행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미라처럼 감싸주던 기억이 나네요! 아기는 자궁 밖의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감싸줍니다. 유아가 더 잘 자도록 돕고 스스로 굶는 것을 막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위한 후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구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phatnē**(fat'-nay)입니다. 그것은 소의 침대, 구유 또는 동물의 먹이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무나 아마도 돌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조잡하고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신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저자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왕실 아기들은 어디에서 쉬나요? 왕실 아기들은 호화로운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좌의 귀중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침대가 부드럽고 깨끗한 매트리스와 가장자리 주위에 금색 장식이 있고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은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동물성 음식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사명과 목적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제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마구간이나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믿게 된 것은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관을 현지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세계의 여관은 종종 단지 기초적인 건물이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한 여관은 종종 2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에서는 요리를 하고 동물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2층에서 당신은 잠을 잘 것입니다. 이것은 시골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늑하지만 오히려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위해 예약된 장소에서 태어나 첫날밤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want to conclude my Christmas message by talking about receiving and giving.

### **Receiving**

As I said before we all like to receive gifts. We particularly like gifts that people have thought very carefully about. Gifts that show us that people really know what we like and what will make us happy. The gift of Jesus Christ is the greatest gift any human being can ever be given. It is the perfect gift because it is exactly what we needed. Earthly gifts wear out and decay. Earthly gifts fade and lose their lustre. But the gift that Jesus gives us is eternal. It never fades, decays, wears out or becomes useless. The gift that Christ gives us is the gift of eternal life in His presence. It is a gift that is freely offered to all. To receive that gift only requires that you confess to God that you are a sinner and repent of that sin. Then as Paul told the Philippian jailer you need t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need to put you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trusting in Him alone for your salvation. If you have not accepted Christ as your free gift today do not delay. He came to earth and was born in humble circumstances to save miserable sinners like you and me.

### **Giving**

It's nice to receive gifts at Christmas. It's even better to give good things to those we love. What things will you give to your loved ones this Christmas? What do you think they really want or need? A new smart phone, some fancy clothes, a bottle of wine, some perfume or jewellery, the latest electrical gadget.



They might be happy with these gifts but what they really need is the greatest gift ever given. They need the gift of Jesus Christ. Now it is a gift that you can give but not one you can make anyone receive. Whether someone accepts the gospel or rejects it is down to God. But that does not mean you should not give the gift. In fact you are commanded to give the gift of the gospel. So who will you give that gift to this Christmas season?

나는 받는 것과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전수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특히 사람들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 선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많고 썩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시들고 광택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퇴색하거나 썩거나 닳거나 쓸모 없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그분만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습니다.

### 기부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 스마트폰, 멋진 옷, 와인 한 병, 향수 또는 보석류, 최신 전자 기기. 그들은 이러한 선물에 만족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복음의 선물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구에게 그 선물을 줄 건가요?

